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하여라

본 문 마태복음 26장 41절

누가복음 21장 34-3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23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말씀이 어떤 방향의 말씀이냐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여라.” 하셨습니다. (아멘.)

먼저 이 주제 말씀에 따라 전초 말씀을 해 주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한마디 계시 말씀,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하여라.” 라는 말씀은 외우기 바랍니다. 그래야 왜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사탄에게 뺏기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생활 가운데 가지고 가야 빛을 발하게 되고, 말씀이 삶의 전쟁터에서 무기가 되어 사용할 수 있고, 말씀이 심령의 양식이 되어 온전하게 살게 해 줍니다.

다 같이 주님이 계시해 주신 한마디 말씀을 뇌의 마음에 저장하도록 모두 따라서 말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하여라.”

외웠습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말을 마음에 새겨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하면 전쟁터의 총과 무기같이 쓰입니다. 배고플 때 음식같이 사용됩니다.

영계에 가서 보면 사탄, 마귀, 귀신들도 칼과 총과 각종 무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영혼들을 해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사는 자들이 영의 무기가 없이 다니면서 사탄에게 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을 보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저들은 무기가 없습니까?” 이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무기인데 기도를 진실로 깊이 안 하기 때문이다. 또 내 말씀이 무기인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일말씀, 수요일말씀, 성령집회의 말씀이 무기다. 또 성령의 뜨거운 불이 무기다. 나 예수와 대화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기다. 전도하는 것이 무기다. 그러나 이를 중심하여 행하지 않기에 무기가 없어 사탄에게 당하는 것이다. 나 예수가 말한 계시의 말씀을 100만 불짜리 귀한 보물 같이 보고 마음에 새겨서 가지고 다니는 자는 무기를 가진 자다.”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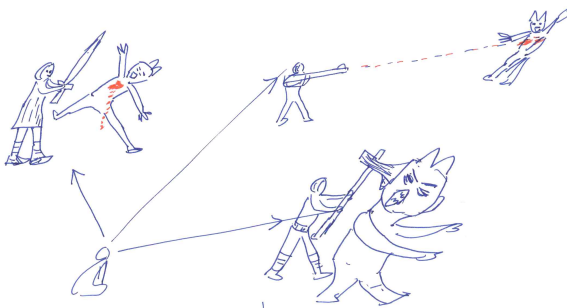
오늘 말씀의 무기는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하여라.” 입니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이 말씀을 행해야 더욱 강한 각종 무기가 나옵니다. 사탄이 자기 영과 육을 해할 때나 시험에 들었을 때 기도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필요한 무기가 말하는 대로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을 해도 무기가 안 나옵니다.

<영상1>

① 선생님 새벽기도

<자막과 설명> 오늘 주일말씀의 방향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 <예수님>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하여라.”

②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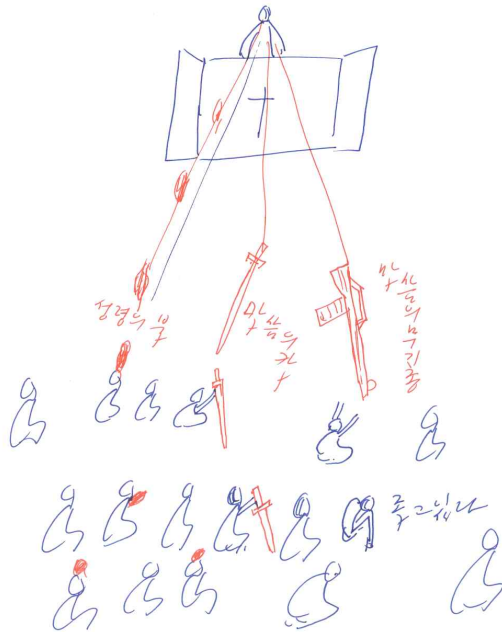


<자막과 설명> 기도는 전쟁터의 총과 칼과 각종 무기와 같아서 신앙 세계와 영계의 무기로 쓰입니다.

사탄도 무기를 가지고 무기 없는 영들을 해치는 모습

<자막과 설명> 사탄도 무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의 영과 육을 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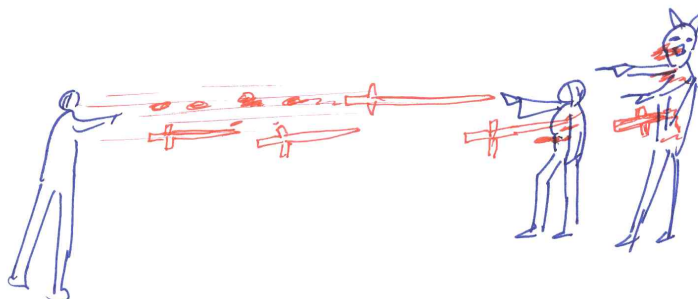
③ 단상의 말씀이 무기 / 성령이 무기 / 기도가 무기



<자막과 말씀> 고로 너희는 영적 무기를 받아라. / 기도가 무기다. 성령의 불이 무기다. 단상의 말씀이 무기다. 내가 주는 것을 받아야 영적 무기를 얻는다.

④ 기도하는 모습 / 성령 받는 모습 /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모습

<자막과 말씀> 기도하고, 성령 받고,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깨달아라. 기도 자체가 무기다. 성령 자체가 무기다. 말씀 자체가 무기다.



<자막과 말씀>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평소에 사탄과 싸울 때마다 말로 선포하면 필요한 대로 자기 말이 곧 무기가

되어 사탄과 인사탄에게 날아가 그 마음과 몸에 꽂힌다.

지금부터 왜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겠습니다.

최근에 써야 할 말씀들이 밀려 있고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두 번의 기도 시간 중 하나의 기도 시간을 일하는 시간으로 쓰면서 철야까지 해 가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밀린 일들을 다했습니다. 이를 보시고 기도할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하여라.”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일이 육적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주님의 심정이 상하시고 일을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자기 혼자 일에 취해서 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애인을 두고 혼자 자위행위로 사랑을 느끼는 자와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의 방향을 잊어버립니다.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로 인하여 짜증이 나고, 권태증이 오고, 일에 질려 버리고, 곤고하게 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식어 가고, 일이 겁이 나게 됩니다. 또 일의 감각이 떨어지고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영력이 없어집니다. 주님과 대화가 끊어집니다. 사탄이 방해해서 일을 제대로 못 하게 됩니다. 일이 이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영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자기와 자기 팀과 교회와 섭리사 전체에 손해가 갑니다.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과 의견이 달라서 서로 다투게 됩니다.

선생이 기도 시간을 가지고 결재해 주고 편지에 답을 써 주고 힘든 자들을 신경 쓰니까 주님은 “편지를 보지만 하고, 특별한 것과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것만 답해 주고 결재하고, 편지 쓰는 데 시간을 절감하여라. 기도 시간 뺏기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내게 편지를 보낸 후에 내게서 답이 안 오면 시험에 드니 답을 해 줘야 됩니다.”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다 힘든 것이다. 먼저 서로 기도로 대화하고 기도로 화답해야지. 네가 5년 동안 계속 편지를 써도

못다 쓸 편지인데, 어찌 글로만 하려느냐. 전체 편지로 써 주어라. 주일 말씀, 수요일말씀이 전체에게 써 주는 편지가 아니냐.” 하셨습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편지를 읽어 보고 결재할 것들을 기도해서 다 받아쓰는데 아침부터 새벽 2시까지 편지 답장만 쓸 때가 많습니다. 이같이 하는 줄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본인들은 편지 한 장을 쓰지만, 선생이 있는 곳은 우체국같이 쌓입니다.

모두 먼저 기도로 만나고 기도로 화답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일말씀, 수요일말씀, 성령집회 말씀 중에 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영적인 자로서 육적으로 빠지지 않고 중심을 바로잡고 살 수가 있습니다. 고로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어서 모두 안 줄로 압니다. 모두 기도하기 바랍니다.

대학부 새 신자 중의 한 사람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를 보니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놓고 100일을 정해 놓고 기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일이 끝나는 날까지 아무 응답이 없어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대학부 중앙에서 관리 교역자로 있는 지도자가 와서 기도한 것에 대하여 자세히 상담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1차적으로 답을 받고, 그리고 성령집회에 참여하여 또 답을 받았습니다. 대학부 중앙 지도자는 나머지 풀어지지 않은 것은 선생에게 편지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선생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통해 말해 주었다. 나머지는 내가 말해 줄 테니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답을 주어라.” 하셨습니다. 이에 편지로 확실한 답을 해 주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 주기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응답해 주기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같이 응답해 주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 놓고 100일, 혹은 1000일씩 기도하면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은밀하게 답을 해 주기도 하시지만, 주님은 사람을 쓰고 그

‘사람’을 통해 응답해 주기도 하시고, ‘만물’을 통해서 응답해 주기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응답해 주기도 하십니다. 기도하면 여러 가지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모를 때는 선생에게 편지를 써서 물어보면 됩니다.

섭리 전체 모든 사람들, 특히 지도자에게 주님은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하여라.” 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기에 이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어느 날 시험이 닥친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먼저 기도하여 사전에 속히 해결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여 해결해야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뜻하신 바에 따라서 온전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선생도 이 말씀을 듣고는 즉시 모든 일을 중지하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다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쓰기 전날 밤부터 저녁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하니 주님은 더욱 함께하시면서 더 깊고 많은 말씀을 주시고 교정도 해 주셨습니다. 저녁 기도가 끝나면 하루를 마무리 짓고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섭리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뛰면서 삶 속에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의 길을 들이기 바랍니다. 전혀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집에서라도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 보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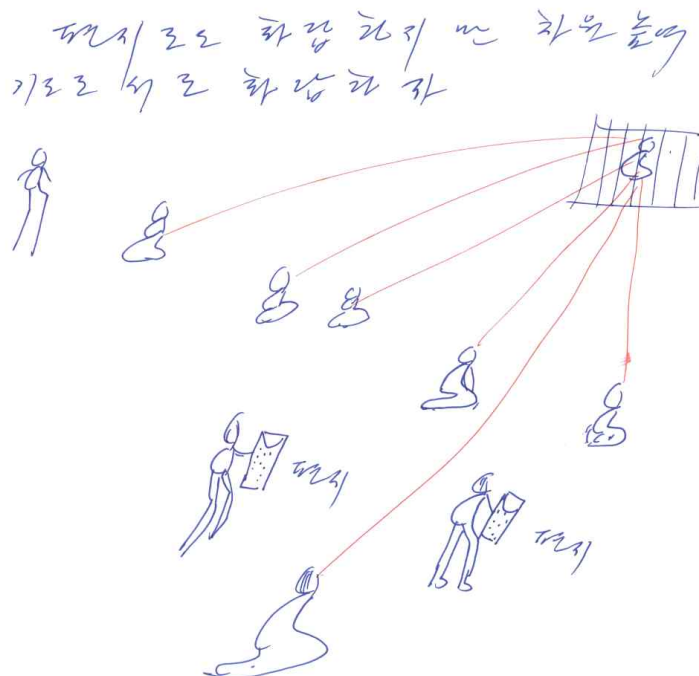
<영상2>

<자막> 왜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가?

- ① 육적으로 일하는 모습 / 짜증나고 힘들어 쓰러지는 모습 / 하고 싶은 마음이 식고 일에 겁을 내는 모습 / 주님과 멀어지는 모습 / 자기 육과 영이 점점 약해지는 모습 / 사탄이 막고 마음대로 방해하는 모습 / 일하는 자들끼리 싸우는 모습

<자막과 설명>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육적으로만 해집니다. / 짜증나고 힘들어 쓰러집니다. / 하고 싶은 마음이 식고 일에 겁이 납니다. / 주님과 멀어집니다. / 육도 영도 점점 약해집니다. / 사탄이 막고 마음대로 방해합니다. / 기도하며 행하는 자들과 다투게 됩니다.

② 표현



<자막과 설명 : 선생님 당부> 편지로도 화답하지만 차원을 높여서 기도로 서로 화답하자!

③ 100일 기도 후 응답이 없어 낙심하고 뜻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날 오후 지도자가 왕복 600리 길을 찾아와 만나서 풀어 주고, 성령집회 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주님은 답을 주셨다. 또 선생에게 편지하여 응답받았다. (실감 나게 간단히 표현)

<자막과 설명> 기도하면 이같이 사람을 통해 응답을 주십니다.

④ 꿈을 통해, 생시에 만물을 통해 응답을 주시는 모습

<자막과 설명> 기도하면 어느 때는 꿈을 통해서, 생시에 만물을 통해서도 응답을 주십니다.

<성구 자막>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 26:41)

<마무리 자막> 기도의 길을 돌아자!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잘 듣기 바랍니다. (아멘.)

<영상3> 예수님 출현

<예수님 말씀>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마치 장마철에 쓰러지는 나무와 같다. 또한 물을 주지 않아서 시든 나무와 같아서 그 영혼이 시들어 버린다. 그래도 너희 육은 모른다.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시간을 정해 놓고 꼭꼭 기도를 하면서 일도 열심히 하여라.**

너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절실히 깨달아라. 기도는 일이다. 나 예수에게 그 일에 대하여 확실히 물어보면서 깊이 기도하지 않고 겉 기도만 하고, 일만 하면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그 일은 나 예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된다. 일을 맡은 자들은 모두 기도하면서 일하여라. 기도가 나와 대화다.

기도하면 나 예수가 함께하고, 영감을 주고, 깨닫게 하고, 쉽게 하게 해 주고, 지혜롭게 힘 있게 뜻있게 하도록 해 준다. 기도해야 육신 없는 나 예수의 육이 되고 나의 손발과 몸이 되어 나의 일을 하게 된다. 또한 기도해야 원수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고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나 예수가 무장한 하늘의 사자들과 천군들을 보내어 사탄과 인사탄들을 없애 주고 그 악한 행위를 심판하게 된다.

기도하여 나의 온전한 마음을 깨달아라. 너희를 위해 매일 기도해 주는 너희 선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래야 선생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준 것을 너희가 더욱 받게 되고, 너희가 기도할 때 나 예수가 더욱 응답해 준다.

기도할 때 너희 사적인 마음으로는 또 섭리사 법에서 벗어나게 응답을 받고 깨닫는 것은 너희 육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의지로 받는 것

이다. 고로 너희는 기도할 때 나 예수를 향한 진실한 기도를 하여라. 또한 이방인들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중언부언 구하지 말고 꼭 있어야 될 것을 구하여라.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앞에 마음에 꺼리는 것들과 죄를 고하여 용서받고 죄 없는 자의 입장에서 나 예수 앞에 구하여라.

기도할 때 너희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생각하면서 기도하여라. 너희 정신과 생각을 생생히 하고 내 아버지 앞에 나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각자의 사연을 간절히 구하여라. 합당하면 구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준다. 기도한 것을 쥐도 모를 때가 있으니 기도하여라. 그래야 받은 것을 깨닫게 된다. 확실히 하여라.

나는 눈물의 기도를 원한다. 심정의 기도를 원한다. 진실한 기도를 원한다. 중심의 기도를 원한다. 너희 각자가 내 아버지와 내 앞에 고할 것이 무엇인지 나는 잘 안다. 너희는 그것을 고하여라. 먼저 너희 자신에 대하여 구하고 자백하여라. 그리고 가정과 민족과 세계와 섭리 전체 각 나라를 위해 기도하여라. 너희 선생같이 매일 기도하여라.

<영상4>

① 장마철에 쓰러지는 나무 / 비 안 오면 시들어 버리는 나무

<자막과 말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영과 육은 마치 장마철에 쓰러지는 나무와 같다. / 또 비가 올 때만 싱싱하고 비가 안 오면 시들어 버리는 나무와 같다.

② 기도하면 주님께서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동행하시고 도와주신다. / 주님의 육이 되어 일한다. / 사탄이 방해하지 못한다. / 천군 천사들이 와서 사탄과 인사탄을 없애 준다.

<자막과 말씀> 기도해야 내가 영감을 주고, 깨닫게 해 주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동행한다. / 기도해야 육신 없는 나 예수의 육이 되고 나의 손발이 되어 나의 일을 할 수 있다. / 기도해야 원수 마귀가 방해하지 못한다. / 기도해야 천군 천사를 보내어 사탄과 인사탄들을 없애 주고 그 악한 행위를 심판한다.

[illegible]

<자막과 말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 꺼리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다. /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꼭 있어야 될 것을 확실히 구하여라. / 졸지 말고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너희 생각을 생생히 하고 기도하여라. / 눈물과 심정으로 기도하여라. / 개인, 가정, 민족, 세계, 섭리사 각 나라를 위해 기도하여라. / 매일 기도하여라.

기도 시간을 빼먹고 기도 시간에 딴 일을 하면 안 된다. 꼭 그때 그 일을 그 시간에 하듯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된다. 사정상 교회에 못 나오면 거기서 일하면서 나 예수를 부르며 예배 드려라. 마치 밥 먹을 때 꼭 밥 먹듯, 화장실 갈 때 꼭 가듯, 씻

을 때 꼭 씻듯, 옷 입을 때 꼭 옷 입듯 제때 하라는 것이다.

외국에 가는 자가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탑승 수속 절차를 다 밟고 배고파서 밥을 먹었다. 밥을 맛있게 먹는 중에 비행기가 출발할 시간이 되어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밥이 아깝다고 밥만 먹고 있겠느냐. 바로 숟가락을 놓고 비행기 타는 곳으로 뛰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같이 기도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여라. 환경상 정말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면 마음속으로 하면 된다. 그 시간은 나 예수와 통하는 시간이다. 고로 기도해야 된다.

사탄도 정한 시간에 습격한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얼마나 제 맘대로 하겠느냐. 이는 도둑이 오는 시간에 집을 지키지 않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 도둑이 도둑질하기에 얼마나 좋겠느냐.

전능자 하나님은 때와 질서의 존재자이시다. 때를 통해 행하시는데 인간이 때를 지키지 않으면 얻지 못하게 된다. 너희는 때와 질서를 지켜라. 그래야 올해 나 예수와 대역사를 이룰 수 있다.

내 아버지와 나 예수가 줘야 될 것을 내게 간구하지 않고 너희 노력으로 받겠느냐. 기도해야 준다. 기도해야 받을 수 있고, 받은 것도 헛되지 쓰지 않는다. 나 예수와 대화하지 않는데 주겠느냐. 진실로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깊은 기도의 대화를 해야 된다.

기도를 생명시하여 너희 영혼의 생명을 지켜라. 나의 일을 하면서 매 시간 수시로 내게 묻지 않고 한다면 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나의 마음도 기쁘지 않고, 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종처럼 일만 하지 말고 아들같이 신부같이 나와 기도로 묻고 대화하면서 하여라. 이는 오늘도 너희에게 명하는 바다.

내가 말한 것은 누구나 지켜야 나와 통하여 나와 심정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 된 신부가 된다. 지금 이때는 꼭 기도해야 될 때다. 기도해야 나 예수의 생각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 마음과 생각이 소경이 된다.

오늘부터 꼭 기도하여라. 그동안 너희 중에 간절히 기도한 것은 다 받았고, 때가 되면 주고 또 때 된 것은 이미 주었다. 모두 간증을 하지 않더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다른 상황으로 가게 되고 다른 곳에서 살게 된다.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내게 기도했다. 자기가 사는 집 주변에 술집이 100개도 넘어서 향락가 창녀촌이 되었다고 했다. 이사를 가고 싶지만 고향을 떠나 쫓겨 가기 싫다고 했다. 옛날부터 향락의 지역이라서 지역 주민들이 계속 정부에 건의를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많은 지역 주민들은 고향 집을 헐하게 팔고 떠났다고 했다. 그러나 자기는 고향을 버리고 부모와 딴 데로 가고 싶지 않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니 기도한다고 하며 3년 동안 내게 향락가를 놓고 기도했다.

그 후 3년의 때가 되어 향락가가 없어지게 해 달라고 기도한 대로 정부를 통해 다 철거해 버렸고, 10여 곳만 남겨 두고 그곳마저도 술만 팔고 향락을 엄히 시정하게 했다.

너희 선생도 각 나라의 향락가를 놓고 매일 기도 시간에 기도한다. 너희도 모두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을 놓고 기도하자.

<영상5>

<자막> 정한 시간에 기도하여라.

① 표현

<자막과 말씀> 기도 시간을 정해 놓고 빼먹지 말고 기도하여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 상황이 안 되면 마음으로도 기도하여라. 기도 시간을 빼먹고 마음으로도 기도하지 않고 가는 자들 앞에는 사탄이 대기하고 있다. 어려움이 대기하고 있다.

② 배고플 때 밥 먹는 것 / 급할 때 화장실 가는 것 (실감나게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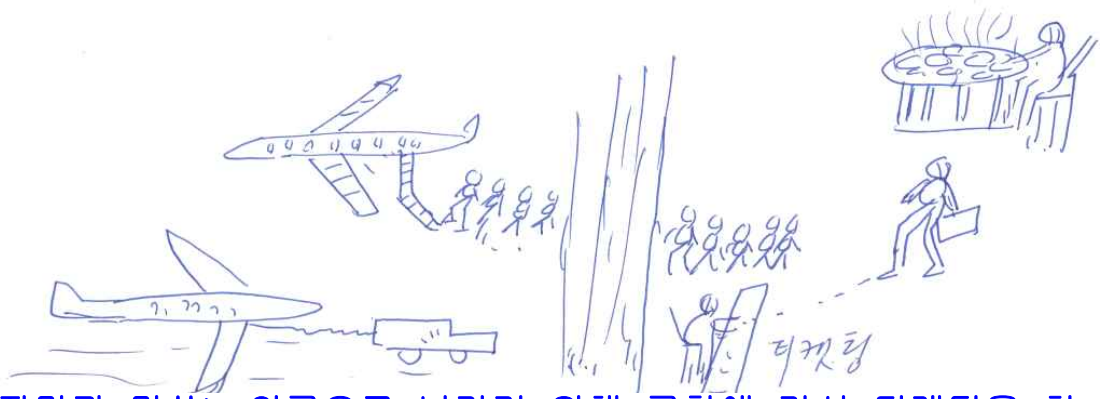
기도하지 않으니 사탄이 오는 모습

<자막과 말씀> 밥 먹을 때 밥 먹듯이, 급할 때 꼭 화장실 가듯이 빼놓지 말고 기도하여라. /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온다.

③ 도둑이 오는 시간에 자고 있다가 다 털리는 모습

<자막과 말씀> 도둑이 올 시간에 자고 있으면 도둑이 오죽이나 잘 훔쳐 가겠느냐.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자가 이와 같다.

④ 삽화로 표현하든지, 실감나게 상황 표현하기.



<자막과 말씀>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 공항에 가서 티켓팅을 한 후에 배고파서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비행기 떠날 시간이 다 됐다고 방송이 나온다. 그래도 계속 밥을 먹고 있겠느냐. / (비행기 시간 맞춰 뛰어가는 모습) 시간을 지켜 뛰어가듯이 기도하여라.

⑤ 일본 지도 - 일본 지도 속으로 점점 축소 시켜 들어가 윤락가가 자리 잡고 있는 일본 거리를 보여 준다. / 그 주변에 주택가가 있다. / 깨끗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일본 교인 / 3년 후 깨끗하게 정리된 거리 (영상이 나올 때 자막으로 이해되기 쉽게 설명)

<예수님 말씀> 3년 동안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

<마무리 자막> 기도해야 받는다. 기도해야 받은 것도 헛되이 쓰지 않는다. / 지금은 꼭 기도해야 될 때다.

큰일을 두고는 오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과 나 예수가 너희 기도를 듣고 감동되게 해야 된다. 하루 이틀 머리 아픈 것을 기도하듯 기도하지 말아라. 정한 날 한 때 두 때 반 때, 혹은 해당되는 기간까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다가 중도에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하자. 꼭 진실하게 간절히 끊임없이 하자. 믿고 하여라. 악과 불의를 놓고 기도하고, 너희 사정을

모두 내게 구하고 기도하면서 의를 행하자. 전능자가 하실 일이니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반드시 땅에서 풀어야 된다. 그래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교역자들과 사명을 맡은 자들과 나를 위해 일하는 자들은 명심하여라. 기도하지 않고 나 예수와 의논하지 않고 하려면 아예 하지 말아라. 일만 더 망친다.

기도하기 힘들지만 꼭 기도해야 된다. 구원과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로 너희가 기도하려면 사탄이 막고 원수 짓을 한다. 먼저 기도하여 사탄과 가라지들을 없애 버려라. 너희 마음의 악을 없애 버려라. 기도하는 것이 사탄과 가라지들과 너희 마음의 악을 없애는 위대한 일이다. 기도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미리부터 서둘러서 재촉하여라.

(수정부분)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가 나의 집이 아니냐. 자연성전이 나의 집이 아니냐. 너희 마음과 몸이 나의 성전이 아니냐. 또한 너희 육이 살고 있는 보금자리 집이 나의 작은 성전이다. 고로 교회에서, 자연성전에서 기도하여라. 그리고 너희 육의 보금자리인 너희 집, 곧 나의 작은 성전에게 꼭 기도하여라.

꾸준히 기도하자. 한두 번 기도하고 말려고 하느냐. 한두 달 기도하고 말려느냐. 집도 짓다가 말면 살 수 있겠느냐. 밥도 먹다가 말면 결국 몸이 쇠하지 않겠느냐. 기도를 농사짓듯 하여라. (추가부분) 농부가 추수하기까지 씨를 뿌리고 가꾸고 퇴비하며 정성을 들이면서 오랜 시간 수고하듯이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시간은 너희가 기도로 그 일을 하는 시간이다. 일을 조금 하면 일의 표가 나지 않는다. 너희는 기도하려고 하면 하기는 한다. 그러나 조금 하다가 만다. 제발 많이 하고, 꾸준히 하고, 될 때까지 하여라.

‘기도는 일’ 이라고 내가 너희 선생을 통해 이미 말해 주었다. 새벽 잠언을 통해서 말해 주었다. 그런데 왜 안 하느냐. 너희가 어떤 일을 하려면 먼저 기도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1년, 2년, 3년 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라. 해 줄 것을 알고 믿고 기도하여라.

나 예수도 너희가 잘되기를 원하니 너희가 기도하면 꼭 해 준다. 너희가 기도하면 3일, 혹은 7일, 혹은 21일, 혹은 한 달 후에 준다. 어떤 것은 40일, 혹은 70일, 혹은 210일, 혹은 10개월, 혹은 3년 6개월, 혹은 7년, 혹은 10년, 혹은 20년, 혹은 30년 후에 준다. 고로 구할 것을 놓고 꾸준히 기도하여라.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큰일이 이루어진다.

예정된 것, 해 주려고 맘먹은 것도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해 준다. 너희 선생이 해 주려고 맘먹은 것도 편지하지 않고 간절히 말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으면 안 해 주는 것같이 나 예수도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해 줄 것도 안 해 준다. 기도하지 않으면 거의 모든 일이 안 된다. 기도하여 받고서 뜻있게 살기를 원한다.

나 예수는 개인 기도, 합동 기도, 또 섭리사 전체가 기도하는 것을 기다린다. 섭리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시대에 맞는 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섭리의 역사를 이끌어 갈 수가 없다.

섭리인들은 이 시대를 아니까 이에 대해 너희가 기도를 해야만 된다. 기성인들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주겠느냐. 너희가 이 시대를 향한 나 예수의 뜻을 아니 아는 자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올해 나 예수와 대역사를 이룬다. 믿고 기도한 것은 너희가 다 받았다. 기도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것은 합당한 때에 줄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여 이미 내가 준 것을 감격하며 쓰고 또 기도하여라.

기도하되 욕심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나의 뜻을 두고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얻으니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여 못 받도록 너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나 예수가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도 막는다. 사탄은 시기와 질투의 영이라 그러하다.

너희 중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주지 왜 힘들게 기도해야

줍니까?” 한다. 내 말을 들어라. 기도해야 준다. 이것이 전능자 하나님과 나 예수의 절대적인 법이다. 기도하고 받아야 받아도 나 예수가 주는 것임을 알게 된다. 또 사탄이 침범하여 빼앗아 가지 못한다.

기도할 것이 없다고 금방 기도를 끝내느냐. 형제를 만나면 1시간, 2시간씩 이야기를 잘하면서 너희를 구원한 나 예수와 전능하신 내 아버지께 그렇게도 이야기할 것이 없느냐. 그동안 멀리 지내서 그러하다. 사랑이 불타면 할 말이 너무 많다. 밤을 새운다. 너희 영혼과 육신에 대해, 섭리사와 앞날에 대해 몰라서 기도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기도해야 자꾸 깊이 들어가 앞날도 느끼게 되고 기도할 것이 생각나는 것이다.

나와 대화하며 내 앞에 깊이 기도하며 계시를 받는 자들은 하루 3시간, 4시간, 10시간씩 기도한다. 그들도 처음에는 5~10분밖에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를 끝냈던 자들이었다. 그같이 오래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정한 시간에 내 앞에 와서 자꾸 기도하며 기도할 것이 생각나게 해야 된다. 운동도 그러하고 무엇이든지 할수록 느는 것이다.

<영상6>

① 기도 시간, 기도 기간

<자막과 말씀> 기도하라고 하면 응답도 못 받았으면서 조금 하다 만다. / 1개월, 2개월, 1년, 2년, 3년, 4년, 7년, 10년 꾸준히 기도하여라. 하다가 과정 중에 끝내지 말아라.

기도한 것을 받고 또 기도하는 모습

<자막과 말씀> 기도한 것을 받고서도 받은 것을 잘 쓰고 더 잘하도록 기도하여라.

② 남을 해하는 기도를 하는 자 / 너무 무례하게 돈과 세상 명예와 세상 것들을 구하는 자 (실감나게 표현할 것)

<자막과 말씀> 남을 해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 욕심으로 기도하면 안 준다.

주님 안에서, 섭리사 안에서의 기도

<자막과 말씀> 나 예수 안에서, 섭리 안에서 필요한 것은 다 기도하여라. 그러면 들어주리라.

- ③ 사람들과 오랫동안 차 마시며 이야기하는 모습 / 오랜 시간 TV에 푹 빠져 보는 모습 / 오랜 시간 인터넷을 하며 게임하는 모습 (실감나게 표현) /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할 말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모습

<자막과 말씀> 내게 기도하라고 하니 할 말이 없다고 하느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나, TV를 볼 때나, 인터넷을 할 때나, 게임을 할 때는 1시간, 2시간, 몇 시간씩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시간을 쓰면서 너희를 사랑하여 구원하는 나 예수에게는 그렇게도 할 말이 없느냐. 놀 때나 자기 시간을 쓸 때는 세월 가는 줄 모르게 쓰면서 기도할 때는 할 말이 없어서 깊이 하지 못하고 금방 끝내느냐.

- ④ 앞날에 닥쳐올 환난 / 내가 얻을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모습

<자막과 말씀> 앞날에 너희 앞에 환난이 오니 기도하여 없애라. /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네가 얻을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니 기도하여 뺏기지 말고 얻어라.

깊이 기도하는 섭리 계시자들의 모습

기도한 만큼 그 앞에 주님의 말씀을 높이 쌓은 모습

<자막과 말씀> 섭리사에서 기도를 깊이 하는 자들은 꾸준히 깊이 기도한다. 나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1시간, 3시간, 5시간씩 깊이 간절히 기도한다. 응답받고 나 예수의 깊고 귀한 말씀을 전해 주려고 기도한다. 또한 나 예수를 사랑하고 섭리사를 사랑하니 힘들지만 기도한다.

<성구 자막>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닢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눅 21:34-36)

이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았으니 나 예수 앞에 다짐한 대로 하자. 나는 말씀을 주고 너희 각자에게 다녀 볼 것이다. 기도하는지, 기도하다가 조는지, 기도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볼 것이다. 인터넷과 TV는 많이 보고, 각자 자기 일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기도에 인색한 자들이 있다. 기도 시간을 귀히 여겨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나 예수가 오늘도 직접 말했다. 내 말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불순종했다고 더 조건을 걸고 침범한다. 꼭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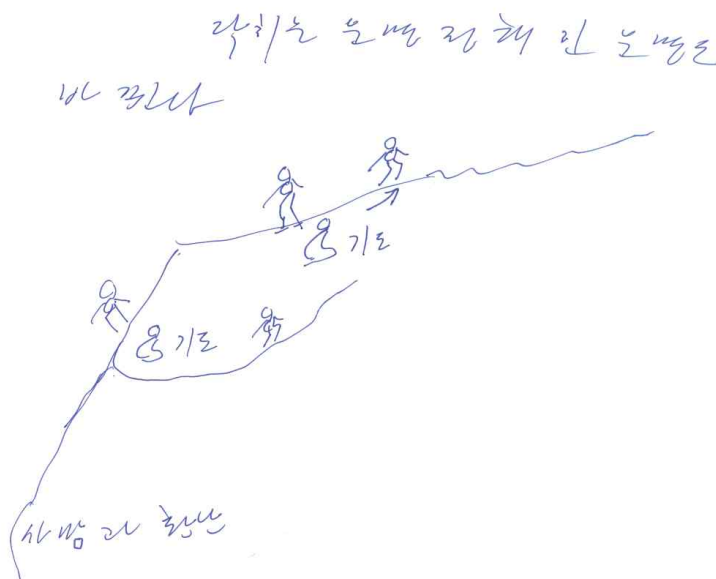
기도하라고 심중히 말한 너희 신랑 주 예수다. 살롬.

<영상7>

- ① 기도하여 사망으로 끌려간 형제들의 영혼을 생명권으로 나오게 하는 모습

<자막과 말씀> 기도해야 정해진 운명도 바뀌고, 사망으로 끌려간 너희 형제들의 영혼을 생명권으로 나오게 한다.

- ② 기도하니 사망길, 환난길로 가던 자가 생명길로 가는 모습



<자막과 말씀> 기도하면 닥치는 운명과 정해진 운명도 바뀐다.

③ - 해당 영상

<자막> 기도하니 사고 날 곳에 안 가게 된다.

- 해당 영상

<자막> 기도하지 않으니 사고 나게 되고 고통이 닥친다.

- 해당 영상

<자막> 기도하니 환난이 닥쳐도 이긴다.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④ 예수님 인사 “나와 대화하자. 기도가 곧 대화다. 그 시간을 귀히 여겨라. 너희를 사랑한다. 샬롬!”

<자막>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하여라.

<축 도>

지금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뜨거운 감동과 불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역사하심이 진실로 끊임없이 주와 대화하며 행하는 섭리사 모든 자들과 온 세계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 고>

6월 15일 수요일에는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하여라.”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된 동기를 더 자세히 말씀해 줍니다. 기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광고>

이번 주부터는 각 교회마다 새벽기도와 기도예에 대한 교육을 하여 기

도에 불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회 상황에 따라 요일을 정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총동원 새벽기도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권장합니다. 총동원 새벽기도의 목적은 한 번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은 “나는 개인 기도, 합동 기도, 또 섭리사 전체가 기도하는 것을 기다린다.” 말씀하셨습니다.

1년 365일 내내 절대 상황이 안 되어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들은 집에서 기도하게 교육해 주시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게 교육해 주시고, 매일 나오기 힘들면 일주일에 3번, 혹은 교회 총동원 새벽기도회 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새벽기도에 대해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